

지역 소식

홍천군 원로 축구단

홍천군 원로 축구단은 오랜 전통을 가진 홍천군민의 자랑



◇홍천군 원로 축구단 회원들과 허필홍 홍천군수가 화이팅하는 모습(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촬영한 사진).

65세에서 9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함께하는 날을 기약

홍천군 원로 축구단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 회장 이성우를 기초로 하여 65세 이상 9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다.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젊음을 자랑하며 축구에 푹 빠진 분들이 모여 일주일에 2-3회씩 홍천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축구를 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오래된 만큼 서로의 애경사에도 함께하는 원로 축구 단체이다.

강원도 18개 시·군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때에 따라 인제, 양구, 영월, 태백시 등 경기장을 순회하며 젊은 축구인들과의 경합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군 원로(장년) 축구단은 건강을 패기로 삼아 조기 축구회로서 구장에 모여 담소도 나누며 좋은 아침을 열고 있다. 활기차게 드리블을 하는 어르신

들은 홍천군민의 자랑이고 보다 많은 군민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이성우 회장은 이야기한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쉬는 중이나 조기 축구인들이 코로나를 군민 모두가 잘 이겨내고 다시 활기찬 내일의 축구인으로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불을 차는 그날의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홍천군 원로(장년) 축구단 회장 이성우는 홍천군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활기차게 군민이 함께하는 그 날을 기약하며 모든 체육인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CONTENTS

- 02 - 홍천군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 임상미생물 생산센터
- 03 - 문화행사 - 홍천음악협회 지부장 인터뷰
- 04 - 홍천강, 길따라 맛따라

- 05 - 기자칼럼
- 06 - 기자칼럼
- 06 - 인생칼럼

- 07 - 건강정보
- 08 - 국민연금 Q&A
- 08 - 주택연금



홍천군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 임상미생물 생산센터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미생물 생산, 농업 및 축산업 농가에 공급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내 임상미생물 생산센터 직원들.
(왼쪽부터 최성은 기술보급과, 정진영 계장, 한정철 친환경종합분석센터담당)

염류장해 개선), 잿빛항균(곰팡이균억제), 탄저항균(고추 탄저균 억제), 악취저감균(암모니아가스제거, 악취제거)등 5가지가 있다.

토양용 미생물

둘째, 토양용 복합 미생물제를 생산, 유상공급하고 있다. 토양용 복합 미생물제는 기비(퇴비, 유박)의 효과 최적화, 토양개량 효과/토양 지력증진, 토양유용 미생물 밀도증가/염류장해 개선, 작물 내병성 증대/뿌리활력 촉진(품질개선)에 효과가 있다.

축산용 미생물

셋째, 축산용 복합미생물제를 생산, 유상공급하고 있다. 축산용 복합미생물제는 사료효율 및 기호성증진, 소화흡수율 향상/일당 증체량 개선, 장내미생물균 안정화, 축사 내 악취제거 등에 효과가 있으며 유상공급하고 있다.

BM활성수 활용

이외에도 BM활성수(미생물 : Bacteria, 미네랄 : Mineral)를 무상공급하고 있다.

BM활성수는 작물에 이용하는 방법과 축산에 활용하는 2가지로 작물에는 발아 촉진, 작물 성장에 효과가 있고 엽면시비 하면 된다. 축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축사환경개선, 음수 첨가, 사일리제 제조와 액비발효 등에 액비로 사용하면 된다.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급하며 액상으로 영농규모에 따라 조정 공급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본소 내 농생물이용 연구실을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한다.

미생물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성은 씨는 강원대 식물자원응용공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에 품질관리원에 첫발을 내딛고 자리를 홍천농업기술센터로 옮겨 7년째 근무하고 있다.

고향이 서석이기 때문에 홍천에 더 많은 애착이 있어 홍천 농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코로나19사태로 미생물 공급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인력이 부족하지만, 코로나 이후도 생각하며 미생물이 농업에 꼭 필요한 만큼 미생물 공급 및 홍보 확대에 고향 홍천의 농업 선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으로 오늘도 묵묵히 동료들과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전소열 기자(silverhong21@naver.com)

이번 호에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업 임상미생물 생산센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유용 미생물 무상공급(액상)

홍천의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며 각종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미생물 생산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3개분야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첫째, 홍천군민 및 홍천군에서 농업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미생물로 4가지와 주문공급 5가지가 있다.

광합성균은 광합성작용 촉진, 공중 질소 고정, 가사피해방지, 악취제거, 작물생산인 자생성, 당화효소 비로 당도 증진 등에 효과가 있고 상시 무상 공급을 하고 있다.

고초균은 단백질, 전분, 섬유소 등유 기물 분해, 유해가스 제거, 항생물질 생성, 인산 및 질산 화합물 분해 등에 효과가 있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상 공급하고 있다.

필요한 사람은 미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물통 20L 등)를 가져가면 된다.

공급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비롯해 두촌면(홍천농협 두촌지점), 서석면(농업기술센터 동

부지소), 화촌면(화촌농협 경제사업소), 남면(농업기술센터 남부지소), 서면(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 등 6개소에서 공급하고 있다.

미생물제 사용상 주의사항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미생물제는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 만든 제품이므로 유통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거나 줄어들니 반드시 유통기간(상온 7일~15일, 저온저장 15~20일)을 준수해야 하며 되도록 저온에서 보관해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농약, 소독약 등과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

사용한 통도 깨끗하게 씻어두지 않으면 다양한 세균과 곰팡이에 오염되므로 깨끗한 물로 씻어 말려 두어야 한다.

유산균은 유기생산성 산도를 낮춤, 혐기 상태에서 유기물 분해, 종자 및 뿌리발육 촉진, 발효 시료 제조, 가축정장작용 등에 효과가 있고 상시 무상 공급하고 있다.

효모균은 토지 발효 촉진, 유해가스 분해, 가축 미지생산정인자생성, 발효사료 제조, 사료효율 증대 등에 효과가 있고 상시 무상 공급하고 있다.

나비 세균은 배추흰나비, 배추좀나무 등 해충피해경감에 효과가 있는데 주문공급을 하고 있다. 주문공급 미생물은 이밖에 인산가용화균(내염성,

문화행사

홍천음악협회 지부장 인터뷰

관중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즐길때 가장 뿌듯합니다



◇김형목 홍천음악협회 지부장

◇홍천강 가요제

올해 홍천군민대상 문화예술부문 수상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행사준비 항상 완료

제38회 홍천군민 대상을 수상하고 홍천 음악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형목 지부장을 만나 음악협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홍천군민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제38회 문화예술 부문 군민 대상은 저에게는 영광이며 과분한 큰상으로 여겨집니다. 저보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공적과 훌륭한 업적을 쌓은 분도 많을 텐데 한편으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천의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분투하겠습니다.

- 자랑스러운 군민 대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아주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불편한 일상이기에 누구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음악협회도 코로나19 시국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올해 접어들어 느슨해진 코로나19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확산하여 행사 준비는 다 되었는데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음악협회 지부장직을 역임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는지요?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올해 들어 찾아가는 음악 활동은 몇 번이나 시행했는지요?

저는 음악협회 지부장을 맡은 지가 7년째입니다. 2005년 무궁화합창단에 입단해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노래 봉사를 시작했으며 2007년 연예인 예

술협회를 창설하여 이종호 회장의 4년 임기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2015년부터 음악협회 지부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사직이 약 30명, 회원이 약 200명 가량의 매머드 단체입니다. 합창단과 동아리 회원이 많습니다.

- 단체를 이끌어 가느라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행사를 하시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애로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행사가 계획되고 있나요?

올해 접어들어 수타사 생태공원에서 새봄맞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 진행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공연을 실행에 옮기려 하자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19가 잠잠해지면 바로 공연에 들어갈 작정입니다.

- 개인적인 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어떤 악기를 주로 다루는지요?

노래는 어려서부터 좋아했습니다. 고향에서 자라면서 통소도 어려서부터 익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커가면서 체질화되고 내면화되면서 노래와 악기를 가까이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목디스크 수술을 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드럼과 색소폰을 즐겨 다루고 있습니다.

- 지부장으로서는 어느 때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나요?

노래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공연할 때 관중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길 때가 가장 뿌듯한 마음을 느낍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예술의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문화예술의 향유를 누리는데 적합한 행사라고 봅니다. 공연이 끝나면 찾아와 작은 돈이지만 식사라도 하라며 봉투를 주기도 하지만 받지는 않습니다. 그때 많은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어려운데 올해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찾아가는 음악회 등 여러 행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 음악협회 지부장으로서는 앞으로의 희망과 지원 단체와 회원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홍천은 예향의 도시로서 악기동아리도 많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못 해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회장직을 그만두면 뒤에서 후배들이 마음껏 역량을 펴 나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38회 홍천군민의 경축 행사는 7월 31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8월 4일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했다. 김형목 음악지부장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홍천군민대상 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다. 음악은 어느 예술보다도 친근하고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장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 즐거움을 주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리라 믿는다. 미증유의 코로나19에 빼앗긴 소중한 일상의 행복과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보나온 삶의 질을 되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김형목 음악협회 지부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정현 기자 (kjh8639@hanmail.net)



홍천강, 길따라 맛따라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마음의 고향같은 푸근한 카페 “농부와 시인”



◇농부와 시인 카페 전경과 내부모습.

장님 일 줄은 까맣게 물렸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의 노인으로 생각했던 나의 예감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카운터 벽면 위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메뉴를 보고 팔빙수와 무궁화 빵을 주문했다. 무궁화수목원 옆에 있어서인지 세트 메뉴라는 생각이 들었다. 콩쥐팥쥐 빙수의 동화 같은 이름에 콩쥐가 팥쥐의 심부름으로 부지런히 얼음을 갈아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며 살짝 웃음이 났다. 각종 커피와 음료, 수제 차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콩쥐팥쥐 빙수가 여름의 대표메뉴인 듯하다.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준 빙수처럼 약간은 덜 세련되었지만, 정감 있는 맛은 일품이었다.

능평리 터줏대감

24년 전 김연엽(농부와 시인 대표, 54세)씨는 텃밭을 개간하여 뒷산에 있는 통나무를 베어와 지금의 자리에 터전을 일구었다. 군대에 다녀와서 직장생활을 하던 그는 90년대 말 한창 붐이었던 전원 카페에 구경 다니는 걸 좋아하다가 직접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께서는 이 산골에 카페를 내면 누가 찾아오겠느냐고 극구 말리셨다. 하지만 능평리에서 나고 자란 그는 맑은 날에는 멀리 오음산(해발 929.6m) 정상에 보이는 이곳에 터를 잡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설득했다.

형제들은 황토를 바르고 능평리 논에서 얻은 벼짚을 엮어 초가를 엮었다. 그 뒤 지금의 황토벽 기와집이 되기까지 중간에 10여 년 간 고깃집으로 업종을 바꾸었다가 다시 카페로 변경하면서 고심이 많았다고 한다. 20여 년 전만 해도 카페 부지의 옆에는 돌투성이 밭이라서 무궁화수목원이 들어서리라고는 상상도 못 한 일이었다.

홍천 무궁화수목원 오솔길 끝에 자리한 카페

홍천은 무궁화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한서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사랑을 기리기 위해 조성해놓은 홍천 무궁화수목원에는 112개 품종, 8,000여 그루의 다양한 무궁화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무궁화를 테마로 한 16개의 주제원을 비롯하여 곳곳에 멋들어진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다. 무궁화의 집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루미스톤 은하수 길과 즐길 거리도 곳곳에 있어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 산책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목원 내의 한서 남궁억 광장을 지나 산책로를 한 바퀴 돌다 보면 끝자락에 무궁화품종원과 분재온실이 나온다. 그 오솔길을 따라 나오면 ‘농부와 시인’ 카페와 곧바로 연결된다.

카페의 정원수로 무궁화꽃도 심겨 있어서 수목원 내의 카페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 홍천 무궁화수목원의 야간 경관이 좋아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이곳을 찾는 손님의 발길도 많아졌다고 한다. 농부의 아들이면서 나고 자란 고향 땅에 마음의 밭을 가꾸는 카페 ‘농부와 시인’의 주인장.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고향의 푸근한 쉼터를 제공하는 그가 분명 능평리 향토 시인이미 틀림없으리라 생각한다.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관광명소로 무궁화수목원 근처 오솔길 카페 토박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고향의 푸근한 쉼터

주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975-20

영업시간 10:00~22:00 /
둘째, 넷째 화요일 휴무

전화번호 033-435-54223

카페 “농부와 시인”

홍천읍 북방삼거리에서 영서로를 따라가다 보면 무궁화수목원을 지나 약 200m 지점에 카페 ‘농부와 시인’이 있다. 조양삼거리에서 10km 거리에 위치하니 춘천 방향에서 찾아오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큰 돌 간판에 쓰여 있는 카페의 상호 때문인지 입구를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마음은 고향에 온 듯 푸근하다. 정겹게 놓여있는 항아리 옆으로 돌계단을 오르니 활짝 피어있는 무궁화꽃이 기억의 저편에서 있는 아홉 살 유년의 딸로 나를 안내한다. 하회탈의 미소처럼 이를 다 드러내어 웃고 있는 토기 인형 옆에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연기 속에서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동화 속의 콩쥐팥쥐 빙수

파라솔과 통나무 의자가 놓여있는 야외테라스에 전통 소품들과 황토벽 옆으로 앙증맞게 피어있는 갖가지 꽃들에 시선을 빼앗겨 사진을 찍다 보니 문득 주인장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다. 통나무 창으로 이미 밖을 내다보고 있던 젊은 남자분이 카페의 사



◇콩쥐팥쥐 빙수와 무궁화빵

기자칼럼

농업이 드론을 만나 시너지를 낸다

농업 생산성: 드론을 만나 시너지를 낸다

드론(Drone)은 주지하다시피 군사용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 드론은 상업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촬영용, 택배용, 농업용, 의료 및 구조용, 레이싱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 농업용으로 드론이 우리나라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일본이 농산물에 대한 맞춤형 무인 항공기(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초반인 것에 비하면 한참 뒤쳐진 셈이다. 드론이 어떤 방식으로 농업에 이용되고 그 생산량을 증진시키는지 살펴보자

농작물 생산 및 관리

농사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작물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때 드론은 악천후로 인해 피해받기 쉬운 큰 농장에서 모니터링 센서를 장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기 힘든 농작 일을 사람을 대신하여 관리해줌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 준다. 이전에도 대규모 농장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 관리했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이미지가 품질이 달라지고 촬영 비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에 농업용 드론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고 농약을 자동으로 분사시켜 농작물을 병충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살포용 드론

은 지표면을 스캔한 후 고도 조정을 통해 정확한 양의 액체를 살포할 수 있어 살균효율을 높이며 수질 오염을 줄인다.

또한 적외선과 열 감지 카메라를 활용해 해충이 모여 있는 지역을 식별하는 농사용 드론은 필요한 부분만 살충제를 뿌려줌으로서 이 역시 토양 오염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드론은 전통적인 농사 방식에 비해 무려 5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농작물 생태 관리

농업용 드론은 농작물의 건강·생태 분석에 도움이 되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다.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시설의 경우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의 난방비가 소요된다. 이렇듯 에너지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시설에서 열손실 절감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사용된다. 이런 카메라를 드론에 장착시켜 이용하는 셈이다. 또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균과 진균 감염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며 농작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식별하기도 한다. 토지 및 농작물의 건강상태와 물의 양 등 데이터와 이미지를 분석해서 농작물을 관리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모든 식물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서로 다른 부분을

흡수하고 반사한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원격 감지 및 분광기를 이용하여 식물의 흡수되고 반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고 그 식물의 건강과 생태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토양 분석

농업용 드론은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의 패턴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어느 시기에 씨앗을 심어 가꾸고 어느 시기에 농작물을 수확해야 작물 생산량이 극대화되는지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과 질소의 수준을 데이터로 추적하여 알려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이 끝나면 관개 작업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은 드론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드론이 여러 산업에 쓰이면서 그 발전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이제 시작 단계인 농업용 드론은 방제는 물론 과중, 농작물 관찰, 병충해 감지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항공 촬영 기술과 원격 탐사 기술을 기반으로 쌓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병충해 조기관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작황예측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 보급된 대부분 농사용 드론은 배 재배용이 대부분이며, 원예작물을 포함한 그 외의 농작물에는 활용도가 적다. 아울러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드론의 여러 기능을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소양교육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기자칼럼



이 광 명

홍천실버신문 기자



◇홍천미술관



홍천미술관과 홍천군 미술협회

홍천미술관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782에 소재하고 있다. 구 홍천군청 자리이다. 홍천미술관은 홍천 문화 재단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으면 개인전과 단체전을 제1전시실, 제2전시실에서 예술적 그림을 관람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홍천미술협회전은 2021.7.1~7일까지 '홍천강 자연을 품다'라는 주제로 참여 회원 28명이 단체전을 펼쳤다. 재직회원은 40명이라고 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축사에서 "이번 작품 전시회는 우리 일상생활 속의 다양

한 소재를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의 미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성실한 창작활동이 함께 빛어낸 미술의 가치를 보여줄 뿐 아니라 7만 홍천군민에게는 내 삶의 공간 속에서 다양한 작품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홍천강 자연을 품다 전시회 개최를 축하한다"라며 자리를 빛냈다.

이어 한국미술협회 홍천 지부장 정혜레나는 "홍천강의 고유성이 가진 본질적인 언어가 터를 잡고 우

리들의 창조적 본성을 일깨우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김종희 화가는 무궁화 중심도시에 걸맞게 독립유공자의 나라사랑을 소재로 하여 무궁화 이야기 '광복의 빛'이라는 개인전을 펼쳤다. 남궁역, 김구, 이승만 등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궁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전시하였다. 김종희 화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 전공석사로서 2018년 한

서 대상, 나라꽃 축제 홍천군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홍천군 미술협회 회원은 40명으로 지부장 정혜레나, 사무국장 김영희, 감사 하형조/강병호, 서양화분과위원장 최인식, 동양화분과위원장 서범구, 민화분과위원장 박춘자, 공예분과위원장 고성형, 조각분과위원장 정혜레나, 서예분과위원장 이상돈 씨로 구성되어 있다.

홍천 미술관은 7만 홍천군민의 창조의 예술관이다. 작가가 묘사한 뜻을 음미할 때 창조적 활동과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말처럼 홍천 미술관이 영원하기를 기대한다.

인생칼럼



석 도 익

소설가

석기시대 유물 중에는 돌칼이나 돌도끼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출토되었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도구가 베고 자르고 파고 박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날카로운 작은 돌을 갈아서 칼로 썼고, 돌맹이를 다듬어 도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같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이며, 자신을 지키는 무기도 되는 것이 도끼다. 그러므로 도끼는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자신을 보호하고, 집을 짓고 생활하는 일에 도끼를 많이 사용하여 왔음으로 가장 믿음이 가는 호신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편리

한 도구이고 잘 다룰 수 있어 믿는 도끼라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도구다.

우리 민족에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말 중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던 일이 틀어지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하여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끼를 믿었는데 나의 발등을 그 도끼가 찍었다고 덮어씌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억울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중팔구 언제나 자기의 잘못은 없고 남의 탓만 하며, 매사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믿는 도끼에 내 발등을 찍었다"

믿는 도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밀려오는 우울감 등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하다.

믿는 도끼란 원론적으로 본다면, 내가 만든 도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알고, 그 도끼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다가 내 잘못으로 내 발등을 찍었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도끼 잘못이 아닌 것인데, 내가 도

라는 말은 자기의 잘못을 애매한 도끼에게 전가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도끼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잘못하여 내 발등을 찍었는데 어쩌란 말인가? 심한 부상을 당했더라도 입 딱 다물고, 아프지 않은 척이라도 하며, 내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도끼는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믿는 도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을만한 사람을 만들었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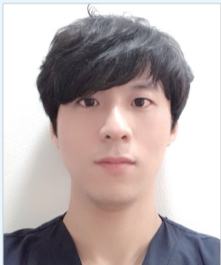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서, 믿는 도끼라고 해야 함에도, 믿지 못할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믿는 도끼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을 상대로 우리는 서로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믿는 사람이나 단체(발등 찍은 사람이나 단체)를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믿는 사람을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나, 믿는 사람이니까 시켜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종용해서 일어나는 사고일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도끼로 표현하며, 자신의 잘못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강정보

녹내장과 백내장의 차이점과 예방



김 홍 일

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과장

백내장과 녹내장은 과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안 질환이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에 젊은 층의 환자가 많아지면서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났습니다.

흔히 두 질환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력장애가 발생하고 녹내장은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시력이 좁아지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안구 질환에 걸리면 시력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안

백내장 초기

백내장 말기

◆백내장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체에 노화가 오는데 50세 이상이 되면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하얗게 혼탁해지면서 주변 사물이 뿌옇게 보이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나 자외선 노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수정체 손상 등으로 백내장이 오기도 하는데, 서서히 시력이 나빠지면서 특히 밤에 사물이 잘 안 보이게 되는 특징입니다.

당뇨병이나 자외선 노출, 염증 등으로 발생하는 백내장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백내장은 예방법이 없는 편입니다.

▶백내장은 여러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수술을 하기보다는 약물치료를 통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정체의 혼탁한 정도가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수정체를 적출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면서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증상으로 주변에 있는 사물이 점점

보이지 않고 아침이나 밤이 되면 일시적으로 안구 충혈이나 통증, 두통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녹내장이 무서운 이유는 신경 손상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손쓰기 어려울 상황에 왔을 때 심각성을 느낄 수 있으며 치료가 늦으면 실명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압이 크게 높지 않아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시신경 구조가 약해서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정상

안압의 녹내장 환자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술이나 담배를 끊고 안압을 올리는 운동은 최대한 삼가는 게 좋고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반대쪽에도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녹내장 초기에는 하루 1~2번 정도의 안약을 넣거나 먹는 약 등으로 안압을 낮춰서 관리할 수 있지만, 시야 손실이 심해지면 안약의 사용량이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18~49세 ('72.1.1.~'03.12.31.출생)

전연령층 추가 사전예약

8월 21일(토) 20시부터
9월 18일(토) 18시까지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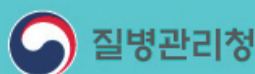
ncvr2.kdca.go.kr



통해

예약하세요

나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안전을 위해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Q :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사업, 근로, 농업, 임업, 어업)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 가능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재산(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 가능	-
사업장(직장) 가입자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근로)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근로)

- ※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 ※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http://fund.nps.or.kr>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033-439-5430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

은퇴 이후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가 걱정되십니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가입요건]

-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 보유 :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대상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 복합용도주택, 농/어업인 주택은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종신지급방식(정액), 일반주택, '21.2월 기준)

연령	주택가격			
	1억원	(우대형)	3억원	6억원
55세	16	17	48	96
60세	21	23	63	127
65세	25	28	76	152
70세	30	34	92	184
75세	37	43	113	227
80세	47	55	143	287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저당권방식’ 과 ‘신탁방식’ 중 고객선택 가능

구 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0세, 3억 기준)	344천원	7천원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 1.0%)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대출상환방식 1.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 / 033-259-3615

